

설교 자료

세계평화주일/삼위일체주일



본 설교 자료는 세계평화주일 목회자 및 지도자들의 예배 준비를 돕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 보고, 듣고, 행동하라는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제작되었습니다. 자료 꾸러미에 포함된 자료들을 각 교회 및 예배와 상황에 맞게 바꾸어 사용하세요. **본 자료는 시편 8편과 요한복음 16장 12~15절에 근거해 작성되었습니다.**

한 밤 중에 밖에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 보고 경외심을 느껴보세요. 광활하게 펼쳐진 하늘에 흩어져 있는 별들이 고대의 불처럼 깜빡입니다. 그 광활함에 겸허해집시다. 시편 기자도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3-4)

이 질문은 경외심 뿐만 아니라 책임감 또한 자아냅니다. 은하계, 바다, 산맥, 개미, 다람쥐, 오리너구리, 우리 폐 안의 숨까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면, 우리도 당연히 서로를 배려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만일 진리의 영이 여전히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정의와 거룩으로 인도하신다면, 교회가 귀 기울이고 응답한다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주일의 의미입니다. 풀 수 없는 복잡한 신학적 퍼즐이 아니라, 너무 커서 답을 수 없는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너머에,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항상 창

조하고 계시고, 항상 말씀하시고, 항상 우리를 부르십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본질이 관계, 움직임, 상호성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이 움직임을 요구하실 때도 고요에 안주합니다.

지속성 확보하기: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고 정교한 멋진 춤을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는 관중석에 앉아 있고 누군가는 무대 중앙에 서 있는 공연이 아니라, 항상 열려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움직임이 확장되는 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리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는 모든 사람이 앉을 수 있을 만큼 큰 테이블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옆으로 밀려났을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자리가 주어지는 테이블입니다.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고, 듣지 못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여 주고, 지친 자에게 휴식을 주는 식탁입니다. 삼위일체가 급진적 사랑의 관계라면, 교회는 하나님의 광대한 환대를 실천할 소명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른다고 주장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나요? 세상은 주의를 기울일 대상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는지 결정하는 데 능하기 때문입니다.

폭력을 피해 아이와 함께 도망치는 어머니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식탁을 채우는 식량을 수확하지만 한 끼 식사도 할 수 없이 밭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금된 채 안전과 소속감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난민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우리도 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설교 자료

세계평화주일/삼위일체주일



성령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 16:12-13)

참으로 심오한 말씀입니다. 진리는 여전히 계시되고 있습니다. 계시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지금 있는 곳 너머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못한 것, 아직 인정하지 못한 것, 아직 바꾸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점이 바로 교회가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미 믿는 것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도전하십니다. 성령은 불안정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어려운 질문을 던지게 하십니다.

솔직하게 우리를 돌아봅시다. 교회가 성령의 이끄심에 저항할 때도 있었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쉬워 보였을 때였습니다. 용기를 내는 것보다는 편안함이 더 안전해 보였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에게 침묵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안락함이란 선택지가 아닙니다.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오스카 로메로는 “가난한 이들과 하가 되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생존에만 관심을 갖는 조용한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무시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고, 불의를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사랑에 대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예언자적 목소리로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주저합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교인들이 떠날 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고, 그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안전한 방법을 택하라고 하신 적이 있었나요?
- 성령께서 사람들을 침묵으로 인도하신 적이 있었나요?
- 하나님의 사랑이 경계에 막혔던 적이 있었나요?

세상은 삼위일체에 관해 말로 설명하기만 하는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삼위일체를 실천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그들을 찾아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정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는 체계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교회가 보이지 않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을 보는 곳이 되기로 결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우리의 마음을 더 크게 만드는 관계를 위해 위험을 감수한다면 어떨까요?
- 성령을 따라 그저 편안함이 아니라 변화로 나아간다면 어떨까요?

믿음은 예배가 끝나는 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문 밖으로 나와 다르게 살기로 결심할 때 시작됩니다.



설교 자료

세계평화주일/삼위일체주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계절을 위한 도전입니다. 이번 여름, 이 평범한 시간이 평범하지 않은 시간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 시기가 우리 교회가 더 대담해지는 시기가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의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예언자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세상살이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주신다면 어떨까요?

기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도 보게 하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듣게 하소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따르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안전함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랑으로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작은 것을 거부하고 성령의 광대한 생명을 선택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들이 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장벽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속적 영향력을 위한 설교 노트 및 아이디어

- **촉각 참여:** 설교 중에 하나님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예배실 앞으로 나아오도록 초대 하세요. 또는 예배실 앞에 테이블을 세우고, 그 테이블에 누가 없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 **개인적 연결:** 회중에게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던 때를 생각해 보게 하세요. 그런 다음, 지역사회에서 지금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게 도전하세요.
- **여름 헌신:** 이 설교는 한 번으로 끝나는 요청이 아니라, 행동하는 계절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번 여름에 정의에 관한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세요 - 믿음과 정의에 관한 독서 모임,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위한 편지 쓰기 캠페인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도전적 질문:**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기 두려워하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일을 다룰 정도로 성령을 충분히 신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그저 반복되는 주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초대입니다. 도전입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순간입니다.

네이트 알리지 목사, 노스캐롤라이나주 파인빌
해리스연합감리교회 담임.

